

는 공간이다(홍성태, 2005).

문화도시란 다른 도시보다 문화적 사적이 많거나 학문, 예술의 문화활동이 활발한 도시를 말하며 창출시점은 1980년대 초중반 이었다. 제조업의 위기와 문화적인 도시전략, 문화를 통한 도시성장이 배경이 되었으며, 문화적인 정체성의 보전을 주요 목표로 하였다. 주요 전략으로는 도시문화의 보전, 문화적인 도시경관 및 구조관리 등이 있다.

위에서 말한 전자의 도시개념은 도시문제의 해결에 대한 도시의 등장으로 도시의 생태적 요소만을 강조하여 도시의 녹지, 산림, 수변에 대해서만 고려하여 지표를 설정하였고, 후자의 도시개념은 도시의 문화적 요소 즉 문화 예술에 대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과 자연에 대한 부분을 간과 하고 있다.

생태도시, 문화도시, 생태문화도시의 개념 정립, 도시의 패러다임의 변화, 국제협약 및 국내법규 내 생태적, 문화적 요소의 구분, 국내 도시의 경향(기관별, 지역별)을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도시는 하나의 개념이 아닌 여러 개의 개념이 공유 되어 있는 융복합적 도시라 할 수 있다. 이렇듯 생태문화도시란 생태적 구조와 기능 등의 생태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한 생태도시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문화적 현상으로 만들어진 문화도시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융복합적 도시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생태적 자원과 문화자원이 서로 공유되어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사람)과 하나로 융복합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국제협약을 살펴보면 유네스코(UNESCO)에서는 세계유산 및 ‘물새 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 Waterfowl Habitat)’인 람사르 협약은 생태적 요소로 자연유산, 복합유산, 람사